

한-필 정상회담 계기 K-소비재 1,600만불 수출계약 달성

- 한국과 필리핀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한-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
- 비즈니스 포럼 계기 총 7건의 기업·기관 간 MOU 체결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민방문 계기, 3월 4일(수)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뷰티·헬스케어 등 소비재 기업 52개사와 필리핀 바이어 70개사가 참가해 총 11건, 1,640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K-소비재의 필리핀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동 행사장 내 ▲소비재 ▲프랜차이즈 등 분야의 우리 기업 전시관을 방문하여 필리핀 내 K-라이프스타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필리핀 현지의 대규모 유통망을 보유한 SM, Landers 등 현지 기업의 부스를 방문하여 필리핀 내 K-소비재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 방안도 모색하였다.

김 장관은 “최근 K-뷰티, 식품 등 한국 제품의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동 행사에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과 함께 3.4일(수) 오전 마닐라 호텔에서 한국과 필리핀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양국 기업 간 협력과 교류의 장인 동 포럼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

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조선·원전·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먼저, 우리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전력기업 메랄코(Meralco)는 신규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재무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MOU를 통해 향후 필리핀 신규원전 도입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 간 조선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MOU가 체결되어 조선 인력양성 및 기술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현지 생산거점인 수빅조선소에서 지난 '25.9월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참석한 강재절단식을 계기로 필리핀 현지에서의 생산을 가속화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 분야에서는 삼양식품과 필리핀 유통사 S&R 간 식품 수출 및 유통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어, 필리핀 현지의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한 K-food의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 진행된 발표 세션에서는 핵심광물·조선·소비재·인프라 등 분야에서 HD 현대중공업, LX인터내셔널, 롯데, K-Water 등 우리 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국민방문 계기 이루어진 한-필 비즈니스 성과가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현지 인허가 및 유통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민문기 (044-203-5710)
		담당자	사무관	이소라 (044-203-5679)